

經濟

# 經濟와 國民所得

李 陽 洙

<經濟評論家>



될 것이다.

## 經濟成長과 1人當 所得規模

韓國經濟는 世界的인 不況의 여파로 成長과投資面에서 一部 低調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輸出伸張의 계속적인 好調豫想 되고 있고, 특히 國際收支가 劃期的으로改善되어 갈 展望이 뚜렷해 짐에 따라 3次 5個年 計劃의 成長目標는 無難히 達成될 것이다.

3次 5個年 計劃이 追求하는 「成長·安定·均衡」의 調和가 이룩되어, 「인플레」의 要因이 根源의으로 除去될 것이며 새마을事業으로 農·工 差隔가 점차 縮少되고 重化學工業建設로 공업구조가 高度化됨에 따라 우리 經濟는 4次 5個年 計劃期間에 해당하는 1977年~81年 間에 11% 水準의 高度成長을 이룩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로써 1人當 GNP는 1971年的 252\$에서 10年後인 1981年에는 1,000弗 가까운 水準에 이르게 될 것이다.

國民總生產規模는 1981年에 14兆 2,200억 원規模가 되어 10年間에 約 4.5倍로 늘어나게

人口增加率은 家族計劃事業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점차 鈍化되어 1981年에는 1.3% 水準까지 떨어질 것이며 이로써 總人口는 1981年에 약 3千 6百 70萬 水準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產業構造의 高度化

經濟成長은 계속 製造業部門에 의하여 主導될 것이며 이 部門의 成長은 輸出增大로 뒷받침될 것이다.

製造業은 重化學工業을 主軸으로 그 構造를高度化하여 海外市場에서 先進工業經濟圈과의 경쟁을 끼나가게 될 것이다. 70年代를 통하여 製造業部門은 年平均 16.0% 上廻하는 實質成長을 이룩하여 製造業部門 附加價值의 對한 GNP構成이 1981年에 30% 水準을 넘게 될 것이다.

한편 農林 水產業의 比重은 81年에 GNP의 20% 以內로 낮아질 것이다.

輸出商品의 構成이 점차 重化學工業製品 中心으로 轉換되어 감에 따라 製造業中 重化學工

業의 比重은 1981年에 46% 水準에 달하게 될 것이다.

重化學工業中 機械 및 金屬部門이 70年代前半에 가장 높은 成長을 보이게 되고 70年代後半에 가서는 기계 및 금속공업부문에 이어 化學 및 石油工業의 伸張이 높아질 것이다.

### 食品工業 成長 지속

食品工業 역시 다른 業種에 뭇지 않게 成長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食品工業은 각 분야에 걸쳐 新製品이 개발되어 국민 식생활 개선은 물론 1次 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추측된다.

### 輸出商品 構成

商品輸出도 1981年에는 約 100億弗 水準에 이르게 될 것이다.

輸出商品中 工產品比重은 점차 높아지고 工產品中 重化學工業製品의 比重이 또한 높아지게 된다.

즉 輸出의 約 93%를 工產品 輸出로 뒷받침하고 工產品의 約 半이 重化學工業 製品으로構成되게 될 것이다.

### 投資水準 및 그 財源調達

成長을 뒷받침할 投資規模도 크게 擴大되어 1981年的 總投資는 3兆 4千億원 規模에 달하게 될 것인바 이는 71年 8,050億원의 約 4倍에 該當한다. 그러나 國內貯蓄率이 점차 提高되어 1981年에는 投資財源調達上의 海外依存을 脫皮하게 될 것이다.

外資導入規模는 3次 5個年計劃期間中 約 46億Fr 水準이 될 것이나 77年부터는 점차 줄게 되며 81년에 이르러서는 必要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國內貯蓄의 增大를 뒷받침하여 消費支出이 70年代를 통하여 年平均 增加率 8.0%以內로 抑制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民間貯蓄의 增大가 重要함은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특히 저축으로 內資는 自立的 產業構造를 確立할 수 있도록 農業·礦業, 그리고 重化學工業에 投資될 것이다.

이러한 自立的 產業構造가 확립되면 原資材 및 資本材의 國內 自給度 提高와 國內市場의 擴大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貿易依存度의 減少, 貿易收支의 改善, 商品別 貿易構造의 改善을 期하게 되고 物價·景氣·國際收支의 對外 依存은 脱皮할 수 있을 것이다.

### 對外 去來의 均衡

商品輸出이 70年代를 통하여 年平均 約 25% 內外의 伸張을 보이고 輸入增加率이 同年代를 통하여 年平均 約 16%의 增加를 보일 것임에 따라 貿易收支는 黑字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1981年的 貿易收支黑字 約 12億Fr은 貿易外收支赤字 約 11億Fr을 充當하고도 남아 總財貨 및 用役 收支上으로 赤字는 完全히 解消될 것이다.

즉 우리 經濟는 60年代 後半에서 부터 外資의 導入을 活潑히 展開하여 그 規模를 늘려왔으며 70年代 前半까지相當한 對外依存이 不可避하였다.

그러나 70年代 後半부터 自立經濟 建設로 結實化 함으로써 그동안 빌려온 外資를 無理 없이 갚으면서 「빌려 쓰는 經濟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